2026
논리논술
megastudy
장진석 논술

# step 4

# 합격답안 실전논술

# 2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 [논리논술 4]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 are my celebrity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밑그림
오롯이 너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로 가면 돼 점선을 따라
잊지마 이 오랜 겨울 사이
언 틈으로 피울 꽃 하나
보이니 하루 뒤 봄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말야
You are my celebrity celebrity
You are my celebrity

– IU, celebrity

# 논제 1 이성과 감정 / 공감 _ 경희대 2024 기출

120분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4] 1강

**문제 1**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2**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가] 깨어 있든 잠자고 있든 이성의 명확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물을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여기에서 상상이나 감각이 아니라 이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이를테면 태양을 아무리 자세히 본다고 해도 그것이 보이는 그대로의 크기일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양(羊)의 몸통에 사자의 머리가 붙어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괴물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이성은 우리가 보거나 상상하는 것이 진실은 아니라고 가르친다. 이성에 따르면, 관념이나 개념은 모두 무엇인가 진실에 근거한다. 완전하고 진실한 신(神)이 진실성이 없는 관념을 우리 속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잠자고 있을 때의 추리는 결코 깨어 있을 때만큼 명확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비록 상상이 수면 중에 명료히 각성될 때가 간혹 있다 해도 말이다. 이성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의 생각도 모든 면에서 진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실은 꿈꿀 때보다 깨어 있을 때 더 잘 발견된다고.

[나] 지금 우리는 거짓에 쉽사리 빠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성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특성은 우리 사회 곳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독일의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알렉산더 클루게는 인간에게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하지도 않는다.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들고 출마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호에 동조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안정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인간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때 과거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낯설 때, 거기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생경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면 이를 피하려는 감정을 갖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문제 해결책을 가진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온 진실을 거짓으로 느끼거나 사실과 거짓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뻔뻔한 거짓말들이 통하고 거짓이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저변에는 인간의 특성이 깔려 있다. 우리는 항상 진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실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칸트와 같은 학자들은 스스로 이성적으로 사는 것을 계몽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을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을 감정의 동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아주 오래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 그 자체보다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이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단순 명료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가 존재할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한 갈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의 거짓 여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며, 그 안정감에 대한 희구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다] 이성에 근거하는 법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시각을 수용하면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쟁을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법은 생각할 수 없다. 공리주의 전통에 서 있는 일부 학자들은 법에서 감정을 배제하라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범죄자의 정신 상태 대신에 법을 통한 억제를 고려함으로써 감정을 배제한 순수한 법률 체계를 옹호해 왔다. 예를 들면, 살인 행위를 처벌할 때 그러한 처벌이 살인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많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정성의 측면에서 그렇다. 자신의 아이가 살해당해서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전에 모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분명히 다른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행위에 내재된 특성도 매우 다르다. 순전히 억제에만 기반을 둔 시각은 이러한 내재적 차이를 포착하지 못한다.

주디 노먼은 수년간 남편에게 물리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남편은 강제로 그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자주 위협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노먼을 '개'라고 부르면서 가혹하게 구타했고, 자신은 침대 위에서 자면서 아내는 바닥에서 자게 했다. 노먼은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고 돌아와, 잠들어 있는 남편을 총으로 쏴 죽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전문가는 노먼이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남편을 없애지 않으면 "자신은 최악의 고문과 학대를 겪으며 살아가야 했을 운명"이며,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은 피고 측이 배심원들에게 정당방위임을 호소할 기회를 주지 않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다수 의견을 낸 주 대법원 판사들은 피고 측 전문가의 소견이 "긴박한 죽음의 위협이나 심각한 육체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 인정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보았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판사는 남편의 "야만적 행위가 피고인의 삶의 질을 최악의 상태로 떨어뜨렸으며, 배심원들도 비참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녀의 행위가 납득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6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사형제도법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삶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배심원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판결문에는 형사범에게 양형을 선고

할 때에 동정심을 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적혀 있다. 물론 무분별한 동정심이 양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동정심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공감의 확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적 교류와 인프라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접착제이다. 공감이 없는 사회생활이나 사회조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 자폐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가? 사회는 사교적이어야 하고 사교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다양한 종류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야 하며, 공감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야 한다.

확장된 공감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평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유일한 인간적 표현이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때 구별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고군분투를 자신의 것처럼 동일시하는 행동이 평등의식의 궁극적 표현이다.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같은 지평 위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공감은 불가능하다. 상대방보다 신분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다르고 낯설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기쁨이나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실감하기 어렵다. 상대방에게 동정을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안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진정으로 공감하려면 그들이 나 같다는 느낌과 반응이 있어야 한다. 공감을 하는 순간에는 '내 것'과 '네 것'이 없고 오직 '나'와 '너'만 있을 뿐이다. 공감은 같은 영혼이라는 공동의식이며, 그것은 사회적 신분의 구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공감의 순간이 신분의 차이와 구별을 없애 버리는 것은 아니다. 공감의 범위를 넓히는 순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위로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통해, 재산이나 교육이나 직업적 신분 등 다른 사회적 장벽이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뿐이다. 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법적 권리나 경제적 수준의 평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잘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예찬하는 것이다. 공감의 순간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경험 가

운데 가장 밀도 높은 생생한 경험이다.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 있다는 것을 더 크게 실감한다. 공감 의식이 성숙할수록 서로의 삶이 더 가까워지고 보편적이게 된다.

[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러한 공감 능력에 입각한 해결책은 국제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머나먼 타국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한 누스바움 같은 철학자 역시 이 방식을 지지한다. 소설가 중에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소설이 주는 유익함 중 하나가 도덕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1856년에 조지 엘리엇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감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설과 그 밖의 예술 작품이 이런 도덕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위대한 예술가가 표현하는 삶의 모습은 더없이 평범하고 이기적인 사람마저 놀라게 하고, 자신과 무관한 대상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이것을 도덕 감정의 원재료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영문학자 일레인 스캐리는 공감에 입각한 해결책에 의문을 표시했다. 타자의 삶을 상상하는 행위가 친절을 끌어내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스캐리는 상대가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의 처지를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독일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들, 미국에 사는 불법체류자들, 폭격으로 사망한 수많은 이라크 군인들과 시민들의 경우처럼 낯선 사람들의 처지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사실, 공감은 많은 경우 감정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수천 명의 타인이 끔찍하게 죽었다는 소식보다 내 아이가 살짝 다쳤다는 소식에 훨씬 더 가슴 아파한다. 부모라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이처럼 낯선 사람의 처지를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럴수록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

다면 이런 요구가 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전혀 모르는 다수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품는 마음이 낯선 사람에게도 똑같이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100만 명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목격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보다 100만 배 더 가슴이 아프지는 않다.

공감에 입각한 해결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타인이 느끼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자신의 것만큼 중시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듣기엔 좋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미국인은 굶주리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삶을 자기 자식의 삶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나 미래 전쟁이 불러올 결과를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지구 온난화나 미래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다수이기 때문이다.

[바]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고글(goggle)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번쩍이는 적외선을 통해 사람들 내부에서 분노나 창피함, 서러움, 기쁨이 피어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지켜본다면 감정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감정은 전염된다. 친구가 당신 앞에서 울거나 웃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들의 목소리와 표정은 당신과 친구 사이의 공기를 통과해 당신의 뇌로 들어와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은 친구의 감정을 넘겨받고 그들의 생각을 해석하고 그들의 안녕을 염려한다. 친구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공감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사실 공감이란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몇 가지 방식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는 것,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당신이 파란색을 어떻게 느끼는지 확실히 알 수 없고, 흥분했거나 두려울 때 당신이 정확히 뭘 느끼는지도 모른다. 각자의 사적인 세계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궤도를 따라 서로의 주변을 맴돌지만, 궤도가 완전히 겹쳐지는 일은 결코 없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되면 두 세계는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공

감은 그렇게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정신의 초능력이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들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추측한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얼굴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공감의 역할 중 하나는 친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친절함은 경직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기술 중 하나이다. 다윈은 친절함을 납득하지 못했다. 다윈에 따르면 생명체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만 타인을 돕는 것은 그 명제에 들어맞지 않으며, 특히 남을 돕느라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친절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다. 친절의 기원은 인류 역사보다 앞선다. 생쥐, 코끼리, 원숭이, 까마귀까지 모두 공감과 친절한 행동을 보인다. 쥐는 같은 우리에 있는 다른 쥐가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는데, 이는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이처럼 다른 개체의 고통을 볼 때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쥐들은 한 우리에 있는 친구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자기 몫의 초콜릿 조각을 내어주는 식으로 서로를 돕는다.

수천 년을 거치면서 우리 인류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 얼굴은 부드러워졌으며, 공격성은 줄어들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눈의 흰자가 커졌고, 얼굴 근육은 정교해졌으며 감정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뇌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발달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뿐 아니라 적이나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까지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2017년에 사람들은 미국에서만 4,100억 달러를 자선활동에 기부했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거의 10억 시간을 소비했다. 이런 친절의 상당 부분은 공감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더 자주 한다. 과거에 우리는 친족이나 소수의 친구 같은 좁은 범위의 사람들만 배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려의 원(圓)은 부족과 마을, 심지어 국가를 넘어설 정도로 확장되었다.

[사] 공감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해가 초래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감은 제로섬 상황을 가져온다. 내 배우자에게 공감을 많이 할수록 내 어머니에게 드릴 공감의 양이 줄어든다. 공감을 하려는 의지와 공감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이 점은 가족, 친구, 고객,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된다. 미용사, 소방관, 전자통신 전문가 등 84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의 공감과 가정에서의 공감은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제로섬 상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어려움과 걱정거리를 경청해 주고 동료들의 과중한 업무를 옆에서 도와준다고 응답한 사람들일수록 가족과의 소통이나 연결에서는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이러한 제로섬 상황은 특히 내부인-외부인 관계에서 우려할 만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 팀이나 조직에 속한 내부인을 향해 공감을 느낄수록 그 바깥에 있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내부 유대감이 커질수록 외부와의 거리감 혹은 단절감이 비례해서 커진다. 이렇게 되면 여러 상이한 조직이나 직능 분야 간에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감의 또 다른 특성은 윤리적 판단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인들에게 공감하고 그 공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익이 곧 내 이익인 양 착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너무 쉽게 눈감아 준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즉, 남에게 공감해서 그를 위하겠다는 이타적 생각을 할 때, 그것을 합리화의 근거로 삼아 무언가를 속이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동료들에 대한 공감으로 인해 조직 내의 비리에 대한 공익 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공사(公私) 구분을 못 한다는 말이다. 회사, 사회단체, 정부 기관 등 각종 조직의 많은 결함, 특히 억압적 태도, 무례한 언행, 성희롱, 업무상 비위에 관한 실제 예들을 떠올려 보자. 주로 내부인보다는 구성원들과의 공감 가능성이 낮은 외부인에 의해 파헤쳐지고 변혁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여러 국가에 관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집단적 충성심을 중시하는 국가들에서 뇌물 등 부정부패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집단주의 문화에 젖어 소속감, 상호 의존성, 연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각종 비리에 관대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논제 2

100분

# 공감과 공존

__ 건국대 2025 기출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4] 2강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자료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문제 2

**[가]와 [나]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론이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히가 1840년에 주장했고, 다른 말로 '최소량의 법칙'이라 부른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최소량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에도 리비히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 있다. 도시도 생태계다.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살아야 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싼 집, 헌 집, 그리고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

[나]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다람쥐나 딱따구리, 고슴도치에 대해 생각 없이 마구 내뱉는 말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지나칠 리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고 먹히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율은 불가피하게 여러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이고, 또 매우 어려운 계명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죽이고 먹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으뜸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20세기의 축산 산업에서 발견되는 동물에 대한 태도와 동물을 취급하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역겹고 비윤리적이며, 이 사회에 끝없는 악운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윤리적 삶이란 진지하게 마음을 쓰고, 예절을 지키며, 기품을 갖춘 삶입니다. 온갖 도덕적 결함을 가진 성격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생각이 인색한 것으로, 이것은 모든 형태의 비열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자와 자연에 대해 무례하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축제성과 종(種)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의사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인디언의 삶을 연구하는 리처드 넬슨은, 아타파스카족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아라. 그건 무례한 일이란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냥 등으로 거두어들인 어떤 생명체의 육신이든지 간에 한 부분도 낭비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성취했다고 뽐내거나,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솜씨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지요.

야생 세계의 예절이 요구하는 것은 너그러움만이 아니라 불편함을 명랑하게 감내하는 기분 좋은 강인함과,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겸손입니다.

- 고등학교『독서』

[다]

(1)

소득 수준별 암 환자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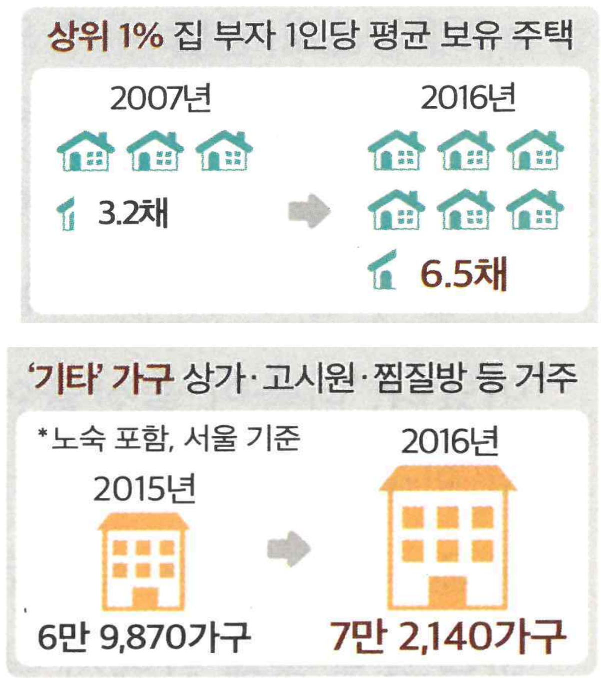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 경제적 이유(2011년)

| 구분 | 소득 수준 | | | |
|---|---|---|---|---|
| | 하 | 중하 | 중상 | 상 |
| 미치료율(%) | 21.2 | 20.4 | 17.2 | 15.5 |
| 경제적 이유(%) | 29.9 | 18.2 | 10.5 | 6.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고등학교 『통합사회』

(2)

주거 상황의 변화




(통계청, 2017) - 고등학교 『한국사』

[라] ※ 앞부분 줄거리 : 도시에서 사는 아내와 남편은 점점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바닷가 빈촌에서 성장한 아내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성장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유를 꿈꾸던 아내는 마침내 침묵한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연두색 피멍이 생기고, 그것은 점점 커져 그녀의 온몸에 퍼진다. 음식도 먹지 않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 좋아하던 아내는 점점 나무로 변해 간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처음엔 놀라지만 그녀를 정성껏 돌본다.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아내는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스웨터를 입어 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지난겨울 여기 올라오셨다가 깜빡 잊고 두고 가신 자주색 스웨터 말예요.

그이가 출장 간 다음 날, 아침부터 오한이 들길래 그 옷을 입어 보았어요. 제때 빨아 두지 않았던 덕분에 묵은 반찬 냄새며 어머니 살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빨아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추워서, 또 그 냄새를 오랫동안 맡고 싶어서 그냥 입고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까지 오한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 얼마나 춥고 목말랐는지, 마침내 아침 햇빛이 안방 유리창에 비칠 때 나는 소리를 죽여 울었답니다. 그 따뜻한 빛을 좀 더 깊숙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 옷을 벗었어요. 벌거벗은 살에 내리박히는 햇빛이 꼭 어머니 살내 같아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만 불렀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칠일까, 몇 주일일까, 아니면 몇 달일까요. 제법 대기가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열기가 가시고, 그 뒤로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멀리 중랑천 너머 아파트의 창문들은 지금쯤 주황빛으로 밝혀졌겠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간선 도로에서 전조등을 내쏘며 달려가는 차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 와서 거기 나를 심어 주었어요. 일요일이면 오전 내내 베란다 문턱에 걸터앉아 진딧

물도 잡아 줘요. 내가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뒷산 약수를 길어 와서 내 다리에 부어 준답니다. 얼마 전에는 기름진 새 흙을 한 아름 사 와서 갈아주었어요. 비가 내린 다음 날,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녘이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어 준답니다. (중략)

*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 치마에 얼굴을 묻으면 아, 그 맛난 냄새. 참기름 냄새, 볶은 깨 냄새. 내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지요. 흙 묻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더럽히곤 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보슬비가 뿌리던 봄날 아버지가 모는 경운기에 실려 바닷가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를 향해 웃어 주시던 우비 차림의 어른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어서는 깡충깡충 뛰며 손 흔들어 대던 아이들의 얼굴이 팔랑개비처럼 맴돌아요.

어머니한테 세상은 그 바닷가 빈촌이지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셨지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늙어 오셨어요. 언젠가는 그곳의 선산 기슭에 아버지와 나란히 누우실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처럼 될까 봐 나는 멀리멀리 여기까지 떠나왔어요. 열일곱 살 때였지요. 무작정 집을 나와 달포 넘게 헤매 다녔던 부산, 대구, 강릉의 시가지들을 잊을 수 없어요. 일식당에서 나이를 속여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나는 그곳이 좋았어요. 시가지의 휘황한 불빛, 시가지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았어요.

어머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를 늙고 망가진 얼굴로 떠돌게 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끈질긴 혼령이 내 목을, 팔다리를 옥죄며 따라다녔을까요. 아프면 울고 꼬집히면 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달아나고만 싶었어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겠다고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바보처럼.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

*

내 내장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 바람 소리 같은 것만 솨솨 메아리친다고 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청진기를 두들기며 그 늙은 의사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청진기를 탁자에 올려놓은 의사는 초음파 검사기의 흑백 모니터를 틀었어요. 누워 있는 내 배에 희고 차가운 유액을 바르고는, 막대기처럼 생긴 차가운 기구로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살갗을 차근차근 문질러 내려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장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양이었어요.

노말*인데.

쯧, 하고 입맛을 다시며 의사가 중얼거렸지요.

지금 보이는 게 위장인데……. 아무 이상 없어요.

모든 것이 '노말'이라고 그분은 말했어요.

위, 간, 자궁, 콩팥 모두 정상인데.

그것들이 모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그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휴지를 몇 장 뽑아 유액을 대충 닦아 주더니, 일어나려고 하는 나에게 다시 누워 보라고 하고는 별반 아프지 않은 배 이곳저곳을 꾹꾹 누르기만 했어요. 아파? 하고 대뜸 반말로 묻는 그의 안경 쓴 얼굴을 쏘아보며 나는 연신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안 아프고?

안 아파요.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토악질*을 했어요. 지하철 구내의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았어요. 통증이 멈추기를 기다리며 숫자를 세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 의사가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 탓이라고 스님 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나, 둘, 셋, 넷, 토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세면서, 한없이 평화롭게……. 기어이 눈물이 솟구칠 때까지 통증은 멈추지 않고, 거푸 위액을 게워 낸 뒤 엉덩이를 깔고 주저앉았어요. 흔들리는 지상이 제발, 멈추어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얼마나 먼 날의 일이었을까요.

*

어머니, 자꾸만 같은 꿈을 꾸어요. 내 키가 미루나무만큼 드높게 자라나는 꿈을요. 베란다 천장을 뚫고 윗집 베란다를 지나, 십오 층, 십육 층을 지나 옥상 위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고 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아, 그 생장점* 끝에서 흰 애벌레 같은 꽃이 꼬물꼬물 피어나는 거예요. 터질 듯 팽팽한 물관 가득 맑은 물을 퍼 올리며, 온 가지를 힘껏 벌리고 가슴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밤마다 그 꿈을 꾸어요.

*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땅에는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풀벌레가 죽어 갔는지, 얼마나 많은 뱀이 허물을 벗었고 어떤 개구리들은 일찌감치 겨울잠에 들었는지요.

자꾸만 어머니 스웨터 생각이 나요. 어머니 살냄새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이더러 그 옷으로 내 몸을 덮어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길이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이는 말라 가는 나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아시지요, 그이한테 가족은

나뿐이었어요. 그이가 부어 주는 약수에 따뜻한 눈물이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불끈 쥔 주먹이 겨냥할 곳 없어 허공을 휘저어 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

어머니, 무서워요. 내 사지를 떨구어야 해요. 이 화분은 너무 좁고 딱딱해요. 뻗어 나간 뿌리 끝이 아파요. 어머니,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죽어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피어나지 못 하겠지요.

- 새우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 명치: 사람의 복장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 노말(normal):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 토악질: 먹은 것을 게워 냄. 또는 그런 일.
- 생장점: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 있으며 생장을 현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

- 고등학교 『문학』

논제 3 80분

# 삶의 태도

_ 중앙대 2025 기출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4] 3강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강요를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강요하는지 쓰고, 강요하는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여인'이 강요를 거부하는 '이유'와 제시문 (라)의 '도념'이 강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남자'가 강요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남자'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퐂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루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퐂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것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나) [앞부분 줄거리]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 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밭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

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가매장(假埋葬) : 임시 매장시체를 임시로 묻음
* 행려병사자 : 떠돌아 다니다가 타향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
* 선영(先塋) : 조상의 무덤 또는 그 근처의 땅

**(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날도 여지없이 번개탄 아저씨의 있어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난 중이었다. 그때 그 소리가 하늘이라도 찢을 듯이 쿵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총소리는 그렇게 가을날의 일요일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 일단의 사냥꾼들이 동네를 에워쌌다. 총소리는 밤낮의 구별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무차별적이었다. 정희가 공포스러워 하는 건 단순한 총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사냥꾼들을 피해 쫓기는 짐승들의 발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렸다. 마을 이장에게 알아본 바로는 지금이 바로 수렵 금지 해제 기간이라는 거였다. 이제 이런 해제 기간이 반복된다면 시골에서도 못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적이 가슴속에서 움터 올랐다.

그리고 그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뒤, 그날도 시어머니는 세상일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멍석 위에 도마를 내어놓고 애호박을 나박나박 썰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완벽한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를 둘러싼 세상은 지금 한판 살육제를 펼치고 있는 거였다. 그날도 총을 든 남자들이 마을 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가 하필 정희네 집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냥 시어머니처럼 세상일 내 알 바 아니라고, 그저 내 하던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적어도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불행이나 한계인지도 모른다. 총을 든 사내들은 ‘사냥꾼’들이었다. 사냥꾼이라면 언젠가 아이들에게 읽어 주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사냥꾼만 있는 줄 알았다.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 주었어요. 여보시오,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저쪽으로 갔어요. 고맙다며 사슴이 갔다는 저쪽을 향해 달음질치는 사냥꾼. 그래서 정희가 여보시오, 차를 빼시오, 하면 그 사냥꾼들도 알았소, 하고 순순히 차를 빼 줄 줄 알았던 것일까.

“이봐요, 차를 여기다 대 놓으면 어떡해요.”

정희가 소리쳤을 때 사내 중 하나가 흘낏 돌아보고는 가던 길을 그대로 올라갔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내 집 앞에 차를 대 놓지 말라고 하는 게 왈왈거리는 소리로 들려요?”

“금방 갈 거야, 그리고 거기가 당신 땅이야?”

“이봐요,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에요, 반말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어머니가 내다보다가 정희 옷자락을 낚아채서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라) [앞부분 줄거리] 어린 승려인 도념은 파계한 비구니인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러던 중에 죽은 자식의 불공을 드리러 찾아오는 서울 안 대갓집 미망인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미망인이 그를 수양아들로 삼기로 하자 도념은 기뻐하며 서울 생활을 기대한다. 그런데 도념이 어머니에게 줄 털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살생을 금하라는 계율을 어기고 잡은 토끼들의 가죽이 불상 뒤에서 발견된다. 이를 본 주지는 도념의 하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도념 :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 무얼 잘했다구 또 그런 소리를 하구 있니?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에미라기보다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를 한 네 에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뜩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헤일 염주면 두 번 헤어야 한다.

도념 :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다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지 :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두 옮아서 그러니라. 네 아비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두 산 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어,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악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루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구,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다 깨끗이 씻어 주시두록 기도해 주마.

도념 :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찔어찔해요.

주지 :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 오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구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 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루 올라갈랴구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가 들끓는 그야말루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루 오탁*의 사바*니라.

도념 :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스님, 바른 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 듣자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도념 :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래두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구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구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지 : (열화같이 노하며) 수다스러.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어라. (미망인을 보고) 아씨께서 진정으로 얘를 사랑하신다면, 얘 매디매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둬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제 아비 제 어미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얘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애(塵埃): 세상의 속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탁(五濁):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움.

*사바(娑婆):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 석가모니불이 교화하는 세계.

(마) 1950년대,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나온 지 1세기가 지났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처지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물론 경제적 형편은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졌으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다. 특히 남부에서 흑인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백인들에게서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백인들과는 다른 학교에 다녀야 했고, 공공장소에서도 백인들과 분리되어 따로 서 있어야 했다. 버스를 탈 때는 뒷문을 이용해야 했고, 공원의 수도꼭지는 백인용과 흑인용이 구별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흑인들 사이에도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스스로 나서고 수백 년 된 흑백 차별의 사회적 관습에 도전해 보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룬 흑인 민권 운동의 선구와도 같았다. 로자 파크스가 살던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는 오랫동안 버스 좌석이 인종별로 나뉘어 있었다. 1955년 12월 1일, 한 버스에 올라탄 로자 파크스는 백인만 앉을 수 있는 맨 앞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운전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라고 말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로자 파크스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와 흑인 민권 운동가들은 로자 파크스 사건을 법의 심판대로 끌고 갔다. 그리고 1년 후 연방 대법원은 버스 내에서의 흑백 구별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흑인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지금까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인종 차별의 벽이 자신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에게서 비롯한 것이니, 개인의 작은 용기가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삽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 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솜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삽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삽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삽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

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경기(驚氣)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다.

(사) 서른 살이 넘어도 아직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공연히 속도만 내는 젊은이들을 가끔 본다. 그럴 경우, 어떤 젊음의 속도를 낸들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못 들어선 산길에서는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걸어도 산정에 다다를 수 없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방향을 놓치고도 미처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돛단배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 있다. 인생의 방향도 타의에 의해 설정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설정된다. 물론 그 방향은 선하고 성실한 방향이어야 한다. 선한 방향이 아니면 누구의 인생이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목표 지향적 여행보다 경로 지향적 여행이 더 바람직하다. 목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자칫 방향보다 속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천박한 속성인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인생 자체가 낙오된 듯 여긴다. 그러나 경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인생의 속도는 줄어든다.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며칠 밤을 묵고 갈까 하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그런 여유 속에서 인생은 목표보다는 경로가, 속도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길 또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고 넓어짐으로써 자족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된다.

(아)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 조선 시대의 사회 체제 아래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중세 체제를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이를 개인 간의 관계로 보면, 지체가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 권위 있고 지체가 높은 상대에게 지나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고전 소설에 그려진 당돌한 인물 형상은 소설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노닐고 싶은 욕망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에 설정된 사건과 그것을 겪는 인물은 현실의 체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소설에 그려진 세상은 그 시대와 체제의 반영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당대인의 노력이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소설의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당돌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순종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소설의 흥미 요소 중 하나인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를 넘어서는 자세를 요구받는다. 그래야 인물의 성격도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그가 겪는 사건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개될 것이다. 소설 속에서 당돌한 인물을 만나면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인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의식과 자세를 보게 된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당돌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겠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현재의 질곡을 타개하고자 하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질곡: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논제 4

100분

# 리더의 역할 / 정부의 역할

— 서강대 2025 기출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바탕으로 [나]에 드러난 문제를 서술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다]와 [라]를 근거로 설명하고, 리더가 팔로워와 소통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800~1,000자)**

[가] 웨이브가 몇 달씩 유지되려면 머리카락에 화학적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파마이다. 머리카락의 모양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시스틴의 황-황(-S-S-) 결합을 끊어 주어야 하는데, 파마 약이 그 결합을 끊어 주는 역할을 한다. 파마 약은 머리카락의 황-황(-S-S-) 결합을 파괴하고 수소를 붙이는 알칼리성 환원제로, 떨어져 나간 시스틴의 황 원자들을 파마 약 내의 수소 원자와 결합(-S-H-)하게 한다. 파마 약을 바르면 시스틴 결합이 깨져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지고, 머리카락이 탄력을 잃고 유연해진다. 이때 로드나 기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머리카락을 구부리고 고정한다. 그 후 중화제를 바르는데, 중화제는 파마 약과는 반대로 산화제이다. 중화제는 다시 산화 반응을 일으켜 공급했던 수소를 빼앗아 처음의 시스틴 결합을 다시 연결해 준다. 그러면 머리카락의 탄력이 되살아나면서 원하는 형태로 구부린 머리카락의 모양이 고정되고, 파마가 완성되는 것이다. 미용사들은 머리카락의 단백질인 케라틴의 황-황(-S-S-) 형태의 시스틴 결합을 끊었다 다시 붙여 주는 화학 반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진행하여 아름다운 머리 모양을 완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미용사들이야말로 과학과 기술, 디자인이 결합된 융합적 분야를 담당하는 선두 주자인 셈이다. -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재구성)

[나]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판의 말은 몽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戰)이 본(本)이고 화(和)가 말(末)이며 수(守)는 실(實)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失德)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이 천천히 말했다.

“상헌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헌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갇힌 성 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가오리까.”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

임금이 다시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쳤다.

“이러지들 마라, 그만하라지 않느냐.”

신료들은 입을 다물었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재구성)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德)을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으로 구분하였다. 지성의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얻을 수 있는 지적 탁월성으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품성의 덕은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가 중용을 따르는 품성 상태를 뜻한다. 중용이란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가지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이는 감정과 행위가 상황에 따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를 뜻한다. 중용은 양극단 사이의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라] 스토아학파의 주된 관심은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얻는 데 있었다. 스토아학파에서 주장하는 평온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즉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부동심(不動心), 즉 아파테이아(apatheia)라고 한다.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정념이란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욕망, 공포, 쾌감, 슬픔 등과 같은 비자연적인 정념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행위로 이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마]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학생들 말마따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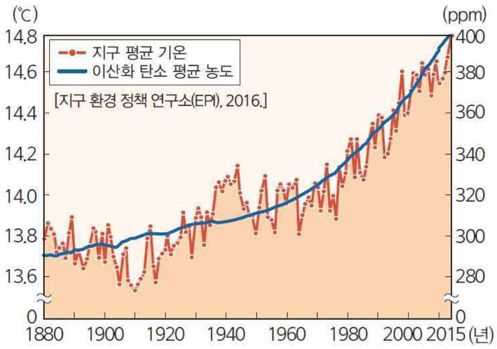
[바] 편협한 시각은 편협한 견해를 낳고 독선에 빠져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원효는 당시 종파들의 논쟁을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본다."라는 말로 비유하였다. 갈대 구멍을 통해 하늘의 좁은 한 구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늘의 전체는 아니다. 사람들은 어느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효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원효는 화쟁(和諍) 사상을 통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분과의 조합을 통해 더욱 타당한 견해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이론과 종파의 특수성과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전체로서 조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소통의 윤리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문제 2** **제시문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나]를 근거로 설명하고, [다]에 제시된 두 정책 도구 중 [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탄소세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를 [라]~[바]를 통하여 추론하고 논술하시오.** **(800~1,000자)**

[가] 화석 에너지의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축소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일부 해안 저지대나 섬 지역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각종 기상 이변이 발생하여 가뭄, 홍수, 태풍, 폭설 등의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 탄소 평균 농도의 변화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재구성)

[나] 경제 활동을 통해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을 주고도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를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은 전염성이 있는 독감 발생을

예방하여 타인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하지만 그 대가를 받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최적 수준보다 적은 사람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 [⋯] 반면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도 이에 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외부 불경제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주위 환경을 오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 활동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재구성)

[다] 정부는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정부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정부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지칭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어 기업과 개인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정책의 예로는 탄소세가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화석연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과 개인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소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재구성)

[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및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수요량의 음(-)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다.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 수요가 변동하면 모든 가격대의 수요량이 영향을 받아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기호가

증가하면 모든 가격대의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공급량의 양(+)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이다. [⋯] 수요 곡선의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의 예는 관련재의 가격이다. 대체재는 용도가 비슷하여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뜻한다. 예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있다. 보완재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뜻한다. 예로는 자동차와 휘발유가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처럼 두 재화가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는 증가한다. 한편,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차와 보완 관계에 있는 보완재인 휘발유의 수요는 감소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재구성)

[마]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전력 생산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적 그리고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과 저장 기술에도 여전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 기술(예, 대용량 배터리)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산업과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원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조적 화석연료 사용도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 보고서』(재구성)

[바] A국 국가에너지국(NEA)의 2023년『국가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A국의 재생에너지 총 설비 용량이 처음으로 화력발전소를 넘어섰다. 지난해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은 2022년 대비 각각 55%, 20% 정도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신규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절반 정도를 A국이 차지했다. [⋯] 다만 A국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규모로 허가하면서 국제 환경단체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해 석탄 수입량은 전년보다 62%나 급증했다.

—≪○○뉴스≫(2024.02.04., 재구성)

논제 5 90분

# 경제 정의

__ 한양대 2024 기출



**문제** **(가)에서 설명된 개념들을 이용하여 (나)의 밑줄 친 '철도 산업'의 특성을 제시하고, (나)와 같은 일이 벌어진 원인을 분석한 후, (다)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1200자, 100점)**

(가)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선 한 사람이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값을 치른 사람만 이 재화나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한다. 돈을 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적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공공재는 이와 정반대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치안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치안 서비스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소비하게 된다. 치안 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치안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치안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이 있는 재화의 생산을 기업이 담당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같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공재와 공공성은 개념이 다르다. 공공재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기업이 생산하여 이윤을 얻을 수 없거나, 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이 불확실하여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런데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 정도로 볼 수 있다. 공공성은 결국 특정의 사람들을 배제

하지 않은 채 모든 개인들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두루 이바지하는 속성이며 보편적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협력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공공성은 있으나 공공재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특별한 해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망과 같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통제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이라고 하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에 따라 간접적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간접자본이라고도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나) A 씨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집에서 도심의 직장까지 날마다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그에겐 출퇴근이 고역이다. "출퇴근 시간에 열차가 만원이면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건너뛰는 일은 예사예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하는 것도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니죠. 불량한 객실 위생 상태 탓에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 역사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직장인 B 씨도 민간철도회사의 비효율적이고 불량한 서비스를 성토했다. "열차가 최소 20분에서 1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흔해요. 아무런 사과 안내방송과 시정 노력이 없는 철도회사의 서비스에 어이가 없어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늘 한 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집을 나서요."

아르헨티나의 철도 민영화는 1989년부터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의 철도 산업은 정부에서 가장 많은 공공 지원금을 받는 만성적인 적자 산업의 하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철도 산업의 민영화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 개선하여 사용자의 서비스도 향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배반당했다. 초기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방대한 규모의 운영에 부담을 느낀 민간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여객 철도의

수익성 감소 탓에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정부가 보조금 지원으로 메워줘야 했다. 재정 지출 감소라는 목표도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적자 노선을 대거 폐쇄하면서, 현재 아르헨티나의 철도망은 민영화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화물 수송에서도 철도는 전체 물량의 8%만 감당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 투자를 미루면서 철도 사고도 증가하였다.

(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조직화된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알아보자.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 물질과의 싸움은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동물에게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우유의 생산량을 늘려 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좋은 식품과 동물의 권리를 묶는 계기로 발전했다.

전문가들은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속에는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도 변화시켰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더불어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이어져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친환경 상품은 생산, 판매, 소비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이러한 주장은 저탄소 지향이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줄여 유통 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지역 먹거리 장려 정책도 역시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 환경, 지역 경제, 가계 경제, 가족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윤리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도 마땅히 제도 보완을 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

경제 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 정의의 범위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 여행 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 여행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공정 무역 제품 선호가 여기에 속한다.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윤리적 소비 운동 단체 대표 C 씨는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어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 무역 제품은 그동안 기업이 일방적으로 누려 왔던 이윤을 원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기에 정의롭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원료, 생산 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성에 담긴 정치·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판단의 정점에는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

논제 6

100분

# 세계화

__ 성균관대 2025 모의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4] 6강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4>는 세계화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1990년도 초반, '세계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이는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을 위한 시장의 국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세계화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세계화가 상품과 자본 그리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세상은 더욱 부유해지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세계화에 적극 동참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소득도 함께 증가하여 절대적 빈곤이 감소하였다. 산업화와 무역으로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보건 위생 시설이 개선되고, 빈곤의 해결로 사람들의 기본 수명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삶의 조건도 좋아졌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변화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시장의 특징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은 특별하고 다르게 태어난다. 그리고 시장은 이러한 개인의 특징을 인정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장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냉정하게 탈락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원칙은 냉정하면서도 공정하다. 물론 공정한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경쟁이 가능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여가 중요하다. 만약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세계화와 불공정한 시장 체제 때문에 악화되었다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분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시장 체제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시장 개입

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규제와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 세계화를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세계화는 곧 세계를 한 울타리로 인류 공동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중시하는 움직임이며 이는 단순한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나라나 민족의 특징이나 차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 공통의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숭상해야 한다. 여러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국경 장벽을 철폐하는 데 골몰하는 사이,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피해를 흡수하지 못하며 세계화의 확장을 가로막는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것도 사실이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의 가능성은 증가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또 세계화에 있어 국가마다 다른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16년에 발표된 세계화에 대한 주요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들은 그리스와 미국뿐이었고 네덜란드나 스웨덴,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와 스페인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모두가 세계화 탓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놀라울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파격적이지만은 않다. 국가마다 차별된 문화와 언어가 있고 아직도 사람과 물건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데 여전히 다양한 규제와 문화 장벽에 부딪힌다. 이러한 장벽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한 세계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특정 계층이나 부류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화가 보편적이지 않다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근원은 상당 부분 세계화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2〉

개발과 저개발이란 단어는 종종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하향식 접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각국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원주민을 공략하는 개발 패러다임을 '개발침략'이라고 부른다. 이 패러다임은 대부분 지속적인 상품의 소비 증가에 근거한 산업화 사회와 시장을 도모한다. 이처럼 '개발침략'으로

규정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원주민의 땅, 천연자원, 생계를 잃게 만들고, 그들의 전통적 지식을 훔치거나 도용해서 특허를 내고, 사회에 갈등을 유발하여 공동체를 위협하고, 개발의 혜택을 원주민들과 나누지 않고, 원주민들을 강제로 동화시켜 그들의 문화를 잃게 만들고, 원주민들을 차별하고, 뒤처지게 만들고, 극단적 빈곤에 빠지게 한다. 세계화는 대체로 개발 패러다임에 따른 상품, 서비스, 노동의 경제적 세계화로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이 세계화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수단들은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도 못했다. 다행히 인종차별 철폐조약,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국제협약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 기준을 제공해 왔다. 왜 이러한 기준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기준들이 정립되지 않았더라면 개발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는 세계화 논쟁에서 여전히 자주 간과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무역 협상들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공정무역의 준거를 따르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 협상들은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약소국 국민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했고 자원의 불공정 배분에 대해서도 달리 손을 쓸 힘이 없었다. 세계화의 주역인 첨단기술산업 분야 이외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상대적 불평등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가 초래한 불균형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이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반영한다. 세계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불균형이 단지 운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문제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불균형보다 경제 효율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사회정의, 환경, 문화적 다양성, 취약계층 보호,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기준에 대해서도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국제인권규약의 제1조는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규범에서의 인권이라는 준거에 따르자면 세계화 과정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은 모든 사회와 경제를 동질의 단일체로 만들어 버리는 1차원적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경제적·사회적 동질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화가 한계에 봉착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세계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발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역시 인류에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제시문 3〉

세계화를 엘리트 계층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세계화가 부유층에 막대한 부를 안겨줬지만 엄청난 소득 불평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세계화의 유령이 또 다른 유령을 낳는다. 그러나 세계화 덕에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빈곤 인구는 10억 명 이상 줄었다. 인도, 중국, 베트남, 한국, 멕시코 등에서 빈곤을 벗어난 이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본 경우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혜택을 누렸다. 스마트폰에서 의류, 장난감까지 다양한 재화의 값이 싸진 덕이다. 세계화를 억제하자는 일부 미국인들의 요구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일자리가 유출된다는 주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중국인이나 멕시코인이 아닌 자동화 기술(로봇)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는 중에도 생산량은 계속 상승했다.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 확대에 불을 지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 저주받기보다 환영받아야 할 현상이다. 불평등을 환영할지는 불평등이 어떻게 초래됐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 결정된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했지만, 이는 제조업, 사무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혜택을 입었다. 물론 모두가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중 하나다. 소득 불평등의 이러한 측면을 인정하지 못하면 발전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선진국에서도 소득 불평

등의 확대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다. 시장의 범위가 국내에서 세계 전체로 확대된 덕이다. 재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 자산을 늘려갈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과 재능을 나누고 이를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 범죄가 아니다. 합법적인 부의 창출이다. 환영받지 못할 불평등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부를 얻고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행태에서 비롯되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을 무섭게 만드는 원인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이용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구슬리는 것이 전형적인 예다. 농업 기업들은 매년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얻어낸다. 제약회사들은 로비를 통해 약값을 올리거나 기존에 있는 상품의 특허권을 연장하려 한다. 부동산 대기업들은 그들의 편의에 잘 맞춰진 세법을 교묘히 이용한다. 이런 행위들은 경제 성장을 늦춤으로써 경제에 해를 끼친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합법화된 도둑질'이라면, 혁신과 창의성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늘 새치기를 통해 자신을 앞서가는 이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화될 수도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인종 특혜에 물들어 있는 백인들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반발해 분노할 때다. 정당화되는 경우는 일부 특별 집단에만 부를 몰아주는 정부에 대해 분노할 때다. 성장은 세계화와 합법적인 불평등에 달려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불평등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세계화와 불평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시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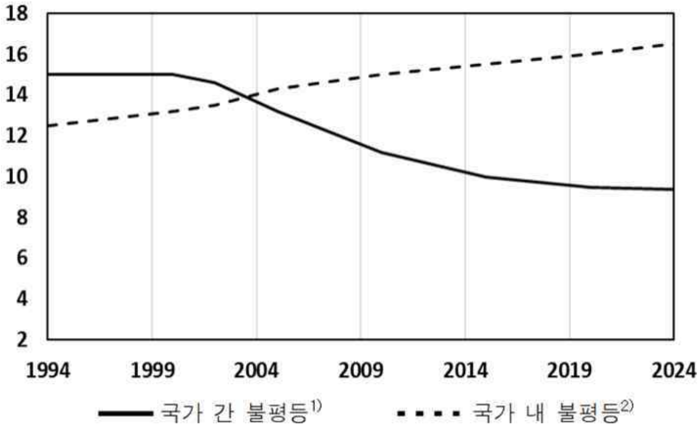
세계화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결같이 세계화를 두둔하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은 이제 대중의 신임을 잃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화에 열광하면서도 그에 동반되는 다양한 측면들의 섬세한 차이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경제 개념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경제적 프로세스들을 뭉뚱그려 놓은 것일 뿐, 그 프로세스들이 전부 건전한 것도 아니며 그 각각의 프로세스가 공통의 효과를 산출할 개연성도 거

의 없다. 우리는 이제 세계화에 대해 균형 있는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이 점은 세계화와 문명 충돌의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은 서구 문화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여기는 서구, 특히 미국의 신념을 뒤흔든다. 서구 문화가 보편타당하다는 신념은 서술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서술적 차원에서는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서구의 가치관, 제도, 관습을 채택하기를 원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당위적 차원에서, 서구 보편주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구의 가치관과 제도, 생활양식을 수용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것들이 인류의 가장 수준 높고 가장 계몽되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문명화된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서구인들이 서구의 가치관, 제도, 문화를 채택해야 한다는 믿음이 비도덕적인 까닭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문화는 힘을 뒤따른다. 따라서 비서구 사회들이 서구 문화에 침윤 당한다는 것은 서구의 힘이 확산되고 팽창하여 비서구 사회에 충격을 가했음을 의미한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는 보편주의의 필연적이며 논리적인 귀결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명의 완숙기로 올라선 서구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회들에 강요할 만한 경제적 저력도 인구 배경도 없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결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가치관에 위배되기도 한다. 만약 아시아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자신들 문화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서구인들은 보편주의와 제국주의의 연관관계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명은 출현, 상승, 쇠락의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 서구가 다른 문명들과 다른 점은 문명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 남다른 가치관과 제도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 다원주의, 개인주의, 법치주의가 포함된다. 서구는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근대성을 창안하고 전 세계로 팽창하면서 다른 문명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런 특성들의 조화는 서구만의 것이다. 북미와 유럽을 포괄하는 서구사회는 개인적 자유, 정치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문화적 자유라는 관념의 원천, 그것도 아주 독특한 원천이다. 이것들은 서구 사상이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사상은 아니다. 서구 문명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이어서가 아니라 독특하기 때문이다.

문제 2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세계 160개국의 자료를 근거로 도출한 지난 30년간의 세계지표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 1>과, 같은 기간 A국과 B국의 사회 · 경제지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2>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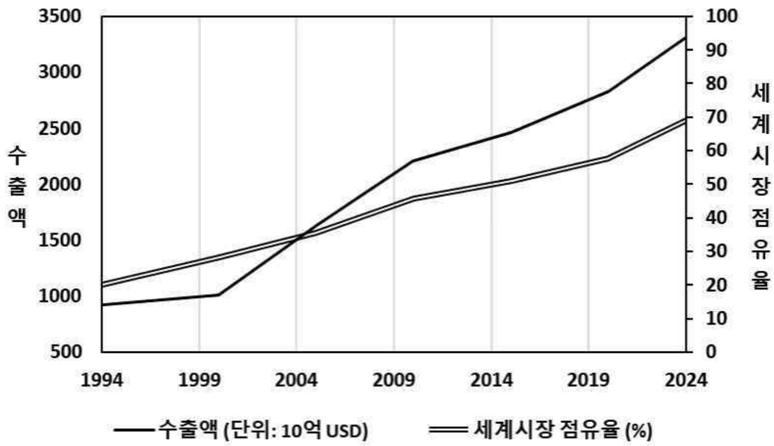
**<자료 1> 지난 30년간 세계지표 추이 (1994년~2024년)**




**<자료 1-1> 소득 불평등**

주1) 국가 간 불평등은 160개국 중 하위 50% 국가 대비 상위 10% 국가의 평균소득 비율로 산출

주2) 국가 내 불평등은 개별 국가 내 하위 50% 대비 상위 10%의 평균소득 비율을 160개국 평균값으로 산출




**<자료 1-2> 첨단산업분야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 실적**

### <자료 2> 지난 30년간 A국과 B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 (1994년~2024년)[3]

| 지표 | 1994 | | 2024 | |
|---|---|---|---|---|
| | A국 | B국 | A국 | B국 |
| 국민총소득(단위: 100만 USD) | 98,348 | 97,916 | 193,689 | 467,137 |
| 인권보장 관련 신규 법안 발의 수(연간) | 13 | 14 | 16 | 40 |
| 도로 보급 수준[4] | 1.11 | 1.23 | 1.58 | 3.12 |
| 1인당 수입식품 소비량(단위: kg) | 27 | 28 | 56 | 298 |
| 수입식품 항공 수송 총 거리[5] | 218 | 247 | 572 | 4,018 |
| 영아사망률[6] | 5.4 | 5.3 | 4.9 | 2.4 |
| 언어위기지수[7] | 25 | 26 | 25 | 65 |
| 첨단기술 대외의존도[8] | 0.36 | 0.35 | 0.41 | 0.83 |
| 첨단산업분야 기술무역수지비[9] | 0.96 | 0.97 | 0.97 | 0.54 |
| 중심도시 면적 대비 인구집중도(%)[10] | 18.8 | 18.2 | 20.0 | 35.1 |

주3) 두 국가는 모두 국제무역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자료에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주4) 국토 면적 및 인구를 고려한 도로 보급 수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도로 보급 수준이 높음

주5) 생산지에서 해당 국가까지 항공편으로 수입된 식품의 총거리는 수송량(ton)×수송거리(km)로 산출함

주6) 영아사망률 = (연간 영아 사망자 수/연간 출생아 수) × 1000

주7) 자국의 고유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한 정도를 1~100 사이의 값으로 평가한 지표 (100에 가까울수록 소멸 위험이 높음)

주8) 첨단기술의 외국인 특허등록건수 / 첨단기술의 내국인 특허등록건수

주9) 첨단산업분야 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

주10) 전국 대비 중심도시의 인구집중도를 전국 대비 중심도시 면적집중도를 고려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값

**문제 3**

**C국 정부는 자국 첨단기술의 우위 강화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 제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에 대해 본인은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예시답안은 복습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답안을 미리 보고 문제 푸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 자신의 답안을 먼저 쓰세요.



## ○ 대학발표 예시답안

**[논제 I]**

〔다〕는 법의 판결에서 감정도 이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부의 사람들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성적 판단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동기나 동정심 같은 감정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그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무분별한 동정심이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감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판결만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다〕는 상황적 맥락과 감정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법적 사례를 통해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의 관점에서 〔가〕의 상황은 부정적이다. 〔가〕는 이성의 원칙에 충실한 인지 과정만이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상상이나 감각을 배제할수록 우리가 진실에 근접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감정적 요소가 정확한 인지와 판단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의 주장은 감정이 인간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다〕에 따르면 사법적 정의는 감정적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 성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원칙만을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도 부정적이다. 〔나〕에 따르면 감정은 인간 존재의 약점이다. 과거에 머무름으로써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여 영향력을 획득하는 정치인들, 감정적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갈망 등은 감정이 어떻게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주장은 일부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감정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866자)

**[논제 II] <[마], [사]의 관점에서 [라], [바]를 비판하는 경우>**

〔마〕, 〔사〕는 공감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 작업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마〕는 공감의 한계를 특히 그것이 미치는 범위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한다.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시공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두루 공감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공감만 강조하면 구체적 대상이 아닌 추상적 다수의 일반적 문제들은 간과된다. 〔사〕는 공감의 한계를 공감의 한정성과 윤리적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적한다. 첫째, 공감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제로섬이므로 내부인을 향한 공감의 증대는 오히려 외부인에 대한 단절감의 증가로 이어진다. 둘째, 공감은 공사 구분을 불분명하게 해 남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무시하는 잘못된 윤리적 판단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

공감의 한계를 지적한 이러한 입장에서 〔라〕, 〔바〕는 공감의 가치만 과도하게 부각시켰다고 비판될 수 있다. 〔라〕에 따르면, 사교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하고, 공감의 확장은 사람들 간에 구별이 사라지며 평등 의식이 확산됨을 뜻한다. 공감은 같은 영혼이라는 공동의식이며, 이런 의식이 퍼질수록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의 삶이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 〔사〕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공감은 한정되어 있고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 간에 차이가 나므로 내부에서의 공감이 외부와의 폭넓은 협력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바〕는 공감의 가치를 감정의 영역에서 찾는다. 공감은 사람들 간의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정신의 초능력으로서, 우리는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전염은 친절한 마음을 확산시킴으로써, 인류와 동물이 사회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마〕, 〔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의 감정적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계와 집단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다. (1,062자)

**[논제 II] <[라], [바]의 관점에서 [마], [사]를 비판하는 경우>**

〔라〕, 〔바〕는 공감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감이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사회에서의 생활과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접착제이다. 〔라〕는 공감의 가치를 특히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강조한다. 사교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하고, 공감의 확장은 사람들 간에 구별이 사라지며 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공감은 같은 영혼이라는 공동의식이며, 이런 의식이 퍼질수록 서로의 삶이 가까워지고 보편성을 띨 수 있게 된다. 〔바〕는 공감의 가치를 특히 감정의 영역에서 찾는다. 공감은 사람들 간의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정신의 초능력으로서, 우리는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전염은 친절한 마음을 확산시킴으로써, 인류와 동물이 사회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공감의 가치를 중시한 이러한 입장에서 〔마〕, 〔사〕는 공감의 한계를 과도하게 부각시킨다고 비판될 수 있다. 〔마〕에 따르면, 타자에게 공감하는 행위가 보편적인 친절을 끌어내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품는 공감의 마음을 낯선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라〕, 〔바〕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공감은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내왔다. 사람들의 삶을 서로 연결시켜 평등한 가운데 사교적인 사회가 등장하게 하는 공감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곤란하다.

한편 〔사〕는 공감의 한계를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공감은 제로섬 상황을 가져오고 특히 내부인을 향한 공감이 외부인과의 단절감을 증가시킨다. 둘째, 공감은 공사 구분을 불분명하게 해 잘못된 윤리적 판단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라〕, 〔바〕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한 공감은 제로섬이 아니고 모든 감정의 전염이 그렇듯이 하면 할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공사 구분을 못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 충성심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공감과 다른 문제이다. (1,083자)

##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가〕는 하위 존재의 처지가 개선돼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며, 〔나〕는 동물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윤리적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무관심 속에 소외되거나 죽어가는 타자, 특히 하위 존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다〕의 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 내지 하위 계층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에서 소득이 낮은 층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낮고,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거의 30%에 달하여 상층 집단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양극화 상황에서 하위 집단이 삶의 기초 요건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2)에서 주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숙 생활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기초 수준의 주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하위 존재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은 인간 기본권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취약한 최소량'에 해당한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사람들의 폭넓은 관심과 함께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배려와 조치가 필요하다. (573자)

**[문제 2]**

〔라〕에는 빈촌을 떠나 도시로 왔으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 식물화되고 있는 '나'가 등장한다. '나'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가〕의 '하위 존재'에 해당하며, 〔나〕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대상이다. 과연 '나'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그러한 배려를 받고 있을까?

'나'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은 어머니다. 과거의 '나'는 가난한 생활에 구속된 어머니를 벗어나 멀리 떠났지만 현재는 따뜻한 모성에 대한 지향을 지니고 있다. 어머니 스웨터로 몸을 감싸고 싶다는 데서 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충족되지 못하며, 이는 '나'를 더 춥고 외롭게 만든다. 삭막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리 없이 신음할 따름이다.

의사의 태도는 왜 '나'가 도시에서 소외되며 식물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얼핏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료행위로 보이지만, 의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이며, 무례함이 있다. 대뜸 반말을 하거나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데도 몸을 찌르는 일,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틀에 박힌 처방을 내리는 일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나'가 지하철 구내에서 고통스런 토악질을 하는 것은 이런 엇갈린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주목할 것은 남편의 태도다. 본래 '나'와 갈등 관계에 있던 남편은 아내가 나무로 변해가자 정성껏 그녀를 돌본다. 약수를 부어주고 흙을 갈아주는 남편의 행동은 예절을 지키는 윤리적 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더 잘 소통하고 배려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머니의 온기를 찾고 땅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아내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화를 내거나 허공에 주먹질하는 모습에서도 심리적 단절감을 보게 된다.

작품 속의 '나'는 특수한 사례로 볼 일이 아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들을 감싸 안을 때 사회는 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987자)

## ○ 선생님 예시답안 (대학 답안 수정)

### [문제 1]

〔가〕는 하위 존재의 처지가 개선돼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설명한다. 〔나〕는 약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윤리적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즉, 두 제시문은 무관심 속에 소외되는 약자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배려가 전제될 때,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최소량의 법칙이 충족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다〕의 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 내지 하위 계층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에서 소득이 낮은 층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낮고,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상층 집단의 4배 이상이다. 이는 양극화 상황에서 하위 집단이 삶의 기초 요건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2)에서 주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숙 생활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기초 수준의 주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약해, 그들이 인간의 기본권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소량의 법칙을 충족하지 못한 사회는 공존과 공생의 힘들어지고 지속 가능성도 실현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598자)

### [문제 2]

〔라〕의 '나'는 빈촌을 떠나 도시로 왔으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 식물화되고 있다. '나'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가〕의 '하위 존재'에 해당하며, 〔나〕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대상이다. 하지만, '나'는 배려받지 못해 더 고립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양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어머니'는 '나'와 강한 심리적 애착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나'는 가난한 생활에 구속된 어머니를 벗어나 멀리 떠났지만, 현재는 따뜻한 모성을 그리워 한다. 어머니 스웨터로 몸을 감싸고 싶다는 데서 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충족할 수 없고, '나'는 더 춥고 외로워진다. 삭막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리 없이 신음할 따름이다.

'의사'는 도시 문명의 몰인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의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이며 무례하다. 대뜸 반말을 하거나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데도 몸을 찌르는 일,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틀에 박힌 처방을 내리는 일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나'가 고통스런 토악질을 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 진료행위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남편'은 양면적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남편은 아내가 나무로 변해가자 정성껏 그녀를 돌본다. 약수를 부어주고 흙을 갈아주고 바람을 통하게 해주는 것은 나무의 생태, 즉 아내를 이해했기에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타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를 찾고 땅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아내의 소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는 것은 여전히 심리적 단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의 '나'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약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강하지 못해서, 주류가 아니라서 더욱 소외되고 이해받지 못한다. 우리가 그들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최소량의 법칙이 무너지면서 인간 공동체의 공존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1,035자)

##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각 제시문에는 어떤 힘을 근거로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대위가 총이라는 물리적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등병에게 자신을 업고 이동하라고 강요한다. 이는 일등병을 인가로 인도하여 그가 끝까지 생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에서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권위로 딸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화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부조리한 분단 현실로 인해 아들을 잃은 고통을 표출하고 그것에 항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제시문 (다)에서 여자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서 사냥꾼들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한다. 이는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고 살육을 벌이는 사냥꾼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제시문 (라)의 주지는 스승이자 종교인으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도념이 절에 남기를 강요한다. 이는 도념이 속세에 나가 타락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물리적 위협, 부모의 권위, 암묵적 권리, 스승의 지위 등의 힘을 내세워 이타심, 저항, 반감, 교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564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여인은 사회적 관습 속에 명백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에서 자리 이동을 거부한다. 제시문 (라)의 도념은 권위에 기반한 강요에 의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을 떠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하며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관철하려 한다. 제시문 (마)와 (라)를 토대로 볼 때, 제시문 (바)의 남자는 상사가 일방적으로 가하는 강요가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상사의 강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등, 상사의 명령에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한편, 제시문 (사)에 따르면, 남자는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선하고 성실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목표만을 향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과 여유로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제시문 (아)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며, 부당한 권위나 지위의 행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567자〕

## ○ 선생님 예시답안 (대학 답안 수정)

**[문제 1]**

각 제시문에는 어떤 힘을 근거로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가)에서는 대위가 물리적 힘과 계급적 권위를 내세워 일등병에게 자신을 업고 이동하라고 강요한다. 이는 일등병을 인가로 인도하여 그가 생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에서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권위로 딸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화장을 요구한다. 이는 분단 현실로 인해 아들을 잃은 고통을 표출하고 그것에 항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다)에서 여자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 사냥꾼들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한다. 이는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고 살육을 벌이는 사냥꾼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라)의 주지는 스승이자 종교인으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도념이 절에 남기를 강요한다. 이는 도념이 타락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 라)는 타자를 위한 강요인 반면, (나, 다)는 자신을 위한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인물은 물리적 위협, 부모의 권위, 암묵적 권리, 스승의 지위 등의 힘을 내세워 이타심, 저항, 반감, 교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569자〕

##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가〕에서는 파마의 원리와 관련하여 파마 약과 중화제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는 미용사의 역할 또한 제시한다. 조직의 리더는 원자를 분리시키는 파마 약 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 원자들을 다시 연결해 줌으로써 시스틴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화제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조직원에 적절한 임무를 배정하여 개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조직원 간의 연결을 통해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리더의 이와 같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나〕의 상황은 두 신하가 팽팽하게 논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임금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리더가 맡아야 하는 중화제의 역할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팔로워들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은 〔나〕에서의 임금처럼 자칫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팔로워들을 연결해야 하는 리더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는 〔라〕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인 부동심을 유지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에서 설명하는 감정과 행위가 상황에 따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인 중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리더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양자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다.

리더가 팔로워와 갖는 소통과 관련해서는 우선 〔바〕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견이 지엽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리더가 보는 부분과 팔로워가 보는 부분이 엄연히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문제의 일면만 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팔로워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에서 제시한 '역할 바꾸기'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팔로워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팔로워의 의견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호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합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997자)

**[문제 2]**

〔가〕는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화석 에너지 소비 증가에 기인하며, 전 지구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한 예임을 함의한다, 민간 기업들은 그들의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가 유발하는 전 지구적 피해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시장을 통한 화석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시장의 실패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라〕는 탄소세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에너지 시장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탄소배출 감축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만약 화석연료 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대체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의 수요증대는 화석연료 에너지 시장의 수요감소로 이어져 간접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게 된다.

하지만 화석연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도 될 수 있음을 〔마〕는 설명한다.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전성 문제가 화석연로 에너지에 대한 여전한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바〕는 이러한 두 가지 에너지원의 “불완전” 대체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도 보여준다.

따라서 탄소세의 우월성은 두 가지 에너지 간의 불완전 대체성에 기인함을 추론할 수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두 에너지 간의 대체성 정도와 상관없이 탄소배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마〕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증대가 화석연료 에너지 시장에서 실제로 목표한 만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만약 두 에너지의 대체성이 매우 떨어지면 원래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오히려 화석연료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946자)

## ○ 합격자 우수답안

제시문 (나)의 철도 산업은 공공성이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정부의 통제는 철도 산업이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띠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논술하기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을 서술하겠다. 공공재란, 기업의 이윤 추구가 불가능하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적 재화이다. 비경합성은 소비의 양적 제약이 없는 것, 비배제성은 재화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철도 산업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같이 철도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관리될 경우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열차가 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합성을 보이고, 열차를 타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배제성을 가진다. 따라서 철도 산업은 공공성이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라는 특성을 지닌다

아르헨티나 사례의 문제점은 위의 특성을 지닌 철도 산업의 주체인 민간 기업이 사익 충족을 목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소극적인 항의와, 정부의 통제 실패로 더욱 심화된다. (나)의 A씨와 B씨는 민간철도회사에 불만을 가졌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는다. (나)의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음에도 민간 기업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수익성만을 노리는 민간 기업은 공공성을 띤 서비스를 파괴하며 소비자들은 철도 이용에 차질을 겪었고, 정부는 감소한 철도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로 인해 재정을 낭비했다. 즉, 공공성의 파괴와 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기존의 문제가 더 심화된 것이다.

제시문 (다)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를 제안하며, 이는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정부의 철도 산업 '사회간접산업화'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기업의 횡포에 적극적인 개선의식을 갖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A씨와 B씨는 윤리적 소비를 실현하여 철도 보이콧과 같은 실질적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당장의 이익만 고려하기 보단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윤리와 공공성을 보존하는 기업정신을 지녀야 한다. 소비자와 정부, 기업 모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윤리적 소비를 실현한다면 사회간접자본 역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공공성은 보존될 것이다.

## ● 선생님 예시 답안

(나)의 철도 산업은 공공성은 있지만, 민영화로 인해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재화의 특성이 있다. (가)는 공공재와 공공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공공성은 모든 개인들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두루 이바지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재를 공급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도로, 항만, 철도, 통신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고 관리하는데, 이 경우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공공성은 있으나 공공재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간접자본인 철도가 민영화되어 철도 산업이 되면, 공공재의 특성은 사라지고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사적 재화와 서비스로 작동한다. (나)에 제시된 사례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재인 철도를 민영화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민간철도회사에게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사회 전체의 비효율성은 증가했다. 정부는 철도 산업 관리 미흡했고, 민간 기업은 공공성을 무시하고 오직 이윤 추구만을 앞세웠다. 결국 민영화 이전 보다 철도 산업은 더 위축되었고, 시민의 불편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손실만 더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윤리적 소비 운동이 필요하다. (다)의 주장처럼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는 단지 현재의 소비 행위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이처럼 (나)의 민영화에 따른 철도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시민들도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 개혁과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제도의 개혁과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부당하고 불편한 서비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로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도와줄 뿐이다. 그러므로 철도 산업의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 다발적인 불매 운동과 같은 당당한 소비자의 권리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어 선순환 되도록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이 바탕이 될 때, 철도는 지속 가능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공선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278자)

##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1, 3〉은 세계화에 긍정적 입장인 반면, 〈제시문 2, 4〉는 부정적 입장이다. 〈제시문 1, 3〉은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1〉은 세계화에 적극 동참한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삶의 조건이 개선되었음을 토대로 세계화의 순기능을 강조한다. 비록 세계화의 성과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세계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국의 시장 체제가 불평등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는 단지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호의존하며 세계 공통의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숭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1〉이 세계화의 본원적 목적과 의도를 강조하며 세계화에 찬성하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면, 〈3〉은 더 나아가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고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한 시장 확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불평등 그 자체는 합법적인 부의 창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 〈제시문 2, 4〉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세계화 이면의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한다. 〈4〉는 문명충돌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세계화는 서구 문명을 비서구 국가들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문명 침략 과정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비서구 사회들이 서구의 가치관, 제도, 문화를 채택해야 한다는 제국주의 논리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서구 문명은 서구 자체의 역사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을 뿐, 보편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세계화를 통해 비서구 사회가 서구 문명의 방향으로 동질화되는 것은 자결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가치관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서구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2〉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2〉는 세계화를 지탱해 온 개발 논리의 위험성 및 세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제무역 협상의 불공정성을 지적한다. 세계화를 주창해 온 사람들은 경제 효율성을 강조했을 뿐, 세계화에 수반된 불평등 문제, 환경문제, 문화적 다양성 소멸 등 비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은 모든 사회를 동질의 단일체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세계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과업은 아니다. (1,345자)

## [문제 2]

〈자료 1〉은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난 30년간 지표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1-1〉은 2004년을 기점으로 국가 간 소득격차는 감소한 반면,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된 현상을 보여준다. 〈자료 1-2〉는 첨단산업 분야의 선진국 기반 다국적기업 수출액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상승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2〉는 같은 기간 두 국가의 사회·경제지표를 보여준다. 30년 전 비슷했던 두 국가의 국민총소득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B국은 A국에 비해 경제적 발전을 통해 삶의 여건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B국의 환경문제 악화, 다양성이 파괴, 대외의존도가 상승, 지역 불균형 등의 사회 문제가 심화되었음도 알 수 있다.

두 자료를 근거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자료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료 2〉에서 A국에 비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B국에서 국민총소득이 크게 늘어났으며, 도로가 확충되고 영아사망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세계화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는 〈제시문 1, 3〉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제시문 1〉은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하는데, 이는 〈자료 2〉에서 B국의 인권보장 관련 신규 법안 발의가 늘어나 인류 공통의 보편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을 근거로 옹호할 수 있다.

반면, 두 자료를 근거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자료 1-2〉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선진국 기반 다국적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B국의 경우 첨단기술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기술무역수지비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 2〉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큰 가운데, 결과적으로 〈자료 1-1〉의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화의 혜택이 일부 계층 또는 산업 분야에 국한된 결과, 〈자료 2〉에서 B국의 중심도시 인구집중도가 크게 상승하여 국가 내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음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B국의 수입식품 항공 수송 총거리의 증가는 이에 수반되는 환경파괴를 야기하는데, 〈제시문 2〉에서 강조한 세계화의 개발 논리에 가려진 환경문제가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국의 언어위기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은 〈제시문 2, 4〉에서 강조한 세계화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소멸되고 선진국의 기준이나 서구의 가치관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1,382자)

**[문제 3] 찬성 입장 (세계화 부정적 입장)**

세계화의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C국의 기업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전 세계의 국가 간 불평등은 감소한 반면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그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로 약소국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료2〉의 B국 사례처럼 언어소멸위기가 높아지고 첨단기술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 주도의 획일화된 세계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C국의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공동체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물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세계화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C국의 정책안에 대해 반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저개발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료 1-1〉과 같이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세계화의 혜택은 선진국 위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제시문 2〉에서 언급한 세계 사회에서 C국이 지니는 특수성과 강점이 강화되는 방안이 될 수 있기에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29자)

**[문제 3] 반대 입장 (세계화 긍정적 입장)**

세계화에 역행하는 C국의 기업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많은 국가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자료2〉의 B국이 세계화의 순기능을 잘 보여준다. 경제성장과 영아사망률의 감소, 도로 보급 수준의 향상은 모두 세계화를 통해 달성한 국가의 발전 모습이다. 하지만, C국 정부가 자국 첨단기술의 우위 강화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 제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세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일시적으로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시문 1, 3〉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자 오히려 환영할 만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자료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C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은 더 요원한 일이 되고, 국가 간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616자)